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보 도 자 료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4월 29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국제교류증진과	담 당 자	• 중국팀장 • 담당자	정선영 ☎440-3231 윤선민 ☎440-32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팔 걷어'

- 인천, 시안시와 단체관광객 유치 협력 -

- 팡 홍 웨이 시안시 위원회 서기 만나 상호 협력 의지 다져 -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선점을 위해 본격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중국 시안시를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현지시간 4월 28일 저녁, 중국 단체관광객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시안시와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평소 중국 기업·단체의 문화관광, 수학여행, 포상관광 등 기획유치를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시안 방문은 중국의 방대한 단체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유정복 시장은 시안시 문화여유국 관계자들과 한·중 여행사 대표, 현지 언론인들이 모인 유치협약 자리에서 “인천은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문화유적이 존재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섬과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들을 보유한 역사문화관광도시”라며 “중국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시안에서 단체관광객 인천 유치에 협력하게 된 것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환영하며 이 자리를 통해 인천의 관광 매력이 중국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중국 단체관광 유치활동으로 약 8만 명의 단체관광객 유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안시와의 우호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현지시간 28일 유정복 시장은 팡 홍 웨이 시안시 위원회 서기와 만나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관광객 유치 등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안은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중심지로서 인천에도 ‘능허대’라는 곳에서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졌던 역사적 인연을 보유하고 있다” 면서 “역사, 문화관광, 물류거점, 첨단산업 등 인천과의 공통점이 많은 만큼 협력사업 발굴 가능성 높아 향후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에 팡 홍 웨이 시안시 위원회 서기는 “인천과 시안은 지난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다양한 문화 교류와 관광 분야 등 협력을 이뤘다” 면서 “이번 인천시장님의 시안 방문이 앞으로 양 도시의 경제·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시안은 중국 산시성의 성도로서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명발생지이자 역사의 중심지인 만큼 역사문화와 관련된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다. 중국과 유럽,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잇는 횡단 열차 운행 등 물류산업도 발달해 삼성반도체 등의 정보통신(IT) 전자 기업을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국 서북지역 최고 중심 도시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중국 시안시에서 열린 '한중 문화·관광 교류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 체결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중국 시안시에서 열린 '한중 문화·관광 교류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28일 중국 시안시에서 팡 홍 웨이 시안시 위원회 서기를 만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그 밖에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